

# 중소업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기업 존폐의 기로”

## 중기중앙회-민주당, 일자리간담회

고령 등 취약계층 10% 감액 제안  
외국인근로자 연차따라 차등적용  
숙식비 등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중소기업계가 여당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별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고령자 등 취약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10% 깎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연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제도를 개선해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이달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정치권과 진행한 첫 자리로 민주당인 직전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인 김경만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 의원뿐만 아니라 일자리·고용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중기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단장 정태호)를 초청해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정태호 단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있는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워 (기업들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최저임금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살피바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대

해 응답자의 80.8%는 ‘동결’을, 7.3%는 ‘인하’를 각각 답해 최근 5년내 조사 중 ‘동결해야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고령자 등 취약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라도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10% 감액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이슈 역시 또다시 나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594명으로 이 가운데

80% 가량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생산성은 내국인의 64.4% 수준이고, 1년이 지나야 9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수습기간이 바로 끝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108.6%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생산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대비 70%(1년차), 80%(2년차), 100%(3년차)로 구분해 적용하고, 수습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임금은 감액(20%)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를 포함시켜 중소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하되, 지원한도도 하루 7만 5000원(월 225만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사업주가 임직원들에게 준 휴업·휴직 수당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4~6월까지 3개월로

한정했고,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정태호 단장은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점점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 걱정된다”면서 “중소기업계에서 건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 현장 목소리가 3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면세점업 외에도 섬유 등 수출제조업, 뿌리산업(표면처리업 등), 급식업, 자동판매업 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이날 간담회에선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도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중소기업의 포괄적 고용유지 대출 프로그램 및 상환 면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법’ 조속 개정 ▲부정당업자 제제완화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물절약전문업(WASCO)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일하기 좋은 우수 중견·중기 알린다

### 동반성장위·KB국민銀 ‘PR챌린지’

동반성장위원회와 KB국민은행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알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국민은행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동반성장 대기업 협력사 PR챌린지’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반성장 대기업 협력사 PR챌린지는 동반성장 대기업 협력사(중견·중소기업)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 PR에 도전(Challenge)한다’는 의미를 담은 홍보 프로그램이다.

이는 복지, 사내문화 및 워라밸 등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중견·중소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열게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코리아엔지니어링, 티벨, 엠큐니, 에치에프알, 일광전설 등 구직자들이 직접 뽑은 중소기업 5개사가 복지, 사내문화, 성장성 등을 구직자들에게 영상으로 홍보한다.

홍보영상은 KB국민 및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서울·경기·경북에 ‘소공인 지원센터’ 구축

### 중기부-소진공, 국비 등 343억 투입 전시·체험·판매장 등 갖춰 내년 완공

서울 서교동(인쇄), 경기 화성 봉담읍(금속가공), 경북 영주 풍기읍(인삼)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추가로 들어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 스마트화 기반 조성 및 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이들 3곳에 국비 75억원을 포함해 총 343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국비 외에 268억원은 지자체와 민간이 낸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소공인 제품 개발과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첨단장비, 우수제품 전시·체험·판매장, 교육·

협업공간, 온라인 마케팅 지원 스튜디오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공인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중기부와 해당 지자체는 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공인의 제품기획, 공동생산, 판로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는 소공인 입주공간(출판, 디자인), 공용장비, 체험공방, 편의시설 등을 구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해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흥대 디자인 밸리 등 문화·콘텐츠와 융합된 인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3차원 측정기, 3D프린터, 머시닝센터(가공기계) 등 특수장비 및 공용시설을 구축해 금속가공 소공인의 설계역량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소공인 간 협업을 위한 스마트 메

탈위킹 콤플렉스 구축을 추진한다.

경북도와 영주시는 인삼클러스터를 활용한 인삼가공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가공시설, 품질·안전성 검사장비 등을 도입해 소공인의 HACCP인증과 품질표준화를 지원하고, 체험·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자체는 2021년까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집적지 특성을 반영한 원스톱 지원시설을 조성해 소공인의 스마트화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작년에 선정된 서울 중랑구, 충남 공주시를 포함해 총 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김승호 기자

## 웰스, 가전제품 구매+관리 ‘케어서비스’

### 전자랜드와 맞손… 최대 3년 케어

웰스(Wells)는 전자랜드와 손잡고 3대 가전 제품 구매시 정기적으로 제품 관리를 결합한 케어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웰스와 전자랜드가 선보인 홈케어 결합상품은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3대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제품 구매 시 비용 1회 납입만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3년, 에어컨 2년 동안 정기 관리 서비스를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다.

웰스 홈케어 서비스는 친환경 세정제를 이용한 오염 케어, 부속품 세척, 필터 청소, 고온 스팀 및 UV 살균 등이 기본 제공된다. 또 마지막 서비스에선 제품 분해 세척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이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웰스 홈케



웰스 홈마스터가 세탁기를 분해 세척하는 홈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어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 정기적인 서비스를 이어 나갈 수 있다.

이번 홈케어 상품은 제품 용량이나 형태에 따라 10만원대부터 40만원대로 구성되며 전자랜드 판매 제품과 결합 이용 시 최대 3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한컴그룹, 클라우드 스타트업 육성 나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과 맞손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이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과 손잡고 글로벌 클라우드 스타트업 육성 및 아시아 지역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한컴그룹은 NBP와 함께 오픈엔드 형식의 ‘아시아커넥트펀드’를 출범한

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한컴그룹과 NBP가 출자한 초기 자금을 기반으로 콜리코너인베스트먼트와 다토즈가 공동운영하며, 올해 말까지 추가 출자자 모집을 통해 100억원 규모로 1차 클로징을 한 후, 2차 모집규모는 기존 출자자와 협의해 오픈엔드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시아커넥트펀드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 단계에 있는 북미와 유럽 지역 중소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한컴그룹과 NBP는 재

무적 투자뿐만 아니라 양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기술, 경영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적 시너지도 모색함으로써 기업 가치 상승에 적극 기여하는 전략적 파트너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한컴그룹과 NBP는 세계적인 언택트의 확산으로 클라우드 환경과 SaaS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SaaS 시장은 성장이 더딘 상황에 주목하고, 이번 아시아커넥트펀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해서 북미와 유럽의 탄탄한 SaaS 솔루션의 아시아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사의 해외 클라우드 시장 확대도 함께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